

다섯개의 플롯, 그리고 그 이상의...

기간: 2011년 5월 1일 - 11월 30일

[쇼케이스] 전시: 2011년 5월 21일 - 5월 27일

[다섯개의 플롯, 그리고 그 이상의...] 전시: 2011년 10월 22일 - 10월 29일

총괄기획: 곽소연

진행: 이인혁 (코디네이터), 김현아 (디자인)

참여작가: 박윤주, 송지은, 오세인+민성진, 정인교, 정철규+신하정

2011 리트머스 플랫폼은 2010년 신설된 리트머스 신진작가지원 프로그램의 후속 프로그램으로 시각예술을 중심으로 장르 간의 크로스오버를 지향하고 실험적인 창작 활동을 지향하는 작가, 아티스트 콜렉티브나 예술가 그룹을 선정하여 지원하는 젊은 작가들의 연대 지원 프로그램이다.

본 프로그램은 참여 작가들이 리트머스가 위치한 다문화 특구인 원곡동의 특수한 지역적 맥락을 기반으로 다양한 작업 방식과 매체, 장르간의 크로스 오버와 협업 등을 통해 새롭고, 실험적인 예술적 실천을 모색할 수 있는 플랫폼을 마련하는데 목표를 둔다. 또한 완성된 결과물보다는 참여 작가들이 프로그램 기간동안 개별적으로 혹은 공동으로 작업/프로젝트를 기획하고 발전시키는 리서치와 프로덕션의 과정을 중요시하며, 작업의 과정과 결과물을 프레젠테이션하고 공유하는 다양한 방식을 실험하고자 한다.

쇼케이스 전시

〈2011 리트머스 플랫폼: 쇼케이스〉 전시는 커뮤니티 스페이스 리트머스의 신진작가 프로그램 〈2011 리트머스 플랫폼〉의 첫번째 전시로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7명의 작가들의 최근 작업과 신작을 소개한다. 본 전시는 11월까지 진행될 프로그램의 출발선 상에서 신진작가들의 기존 작업을 전시를 통해 재조명함으로써 작가들의 작업과 관심사, 예술적 실천 방식을 이해, 공유하고 이를 바탕으로 작가들의 향후 활동 가능성을 모색해 보고자 기획되었다.

다섯개의 플롯, 그리고 그 이상의...

‘다섯 개의 플롯, 그리고 그 이상의...’ 전시는 〈2011 리트머스 플랫폼 - 신진작가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는 7명의 신진 작가들의 지난 6개월 간의 활동 과정과 그 결과물을 소개하는 기획 전시이다.

지난 6개월 동안 원곡동의 특수한 지역적 문맥을 각자의 고유한 관점과 방식으로 접근하여 리서치하고 이를 바탕으로 작업과 프로젝트를 기획하고 수행하였다. 8차례의 워크숍을 통해 작가들은 작업 계획과 진행과정을 기획팀과 함께 토론하고 본래의 계획과 작업 방식을 수정하며 작업을 발전시켜 나아갔다.

올해 신진작가들의 다섯 개의 개별 프로젝트는 한국 최대 이주민 밀집지역인 원곡동이라는 특수한 장소, 자칫 편견에 의해 계토화되거나 ‘우리’안의 ‘외부’로 인식될 수 있는, 보이지 않는 경계로 영토화된 이 장소를 색다른 방식과 관점에서 보다 능동적인 형태의 참여를 통해 경험하고 사유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그리고 외부인/관객과 이 장소를 다양한 층위에서 매개하는 장치로써의 특징을 갖는다. 이러한 장치/매체로써의 프로젝트는 한정된 전시 기간 동안, 제한된 전시 공간에서 예술 작춤이 소개되고 감상되는 일반적인 형태의 전시 구조를 공간적, 시간적으로 확장시키려는 시도와 맥을 같이한다.

듀얼게임 (Duel Game)

- 협업을 통한 문화 번역에 대한 연구와 실험

기간: 2011년 8월 1일 - 11월 30일

전시: 2011년 11월 12일 - 11월 19일

총괄기획: 박소연

진행: 이인혁 (코디네이터), 김현아 (디자인)

참여작가: 류희경, 박도빈, 박호상, 정재민

리트머스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원곡동의 다문화적 특수성과 여기서 파생된 다양한 사회문화적 현상을 작가적 시각으로 관찰, 재해석하고 그 내용을 창작활동으로 연결시키는 프로젝트 형 레지던시 프로그램으로 입주작가 스스로 원곡동 일대를 창작 공간이자 플랫폼으로 삼아 새로운 환경과 문화를 찾아 다니며 접촉하고 경험하는 이동에 중점을 둔다.

2011 리트머스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한국 작가와 원곡동 이주민 간의 상호 소통과 협업을 통해 현상적이고 가시적인 다문화적 환경의 차원을 넘어, 그 이면에 가시화되지 않은 이주민 개인의 삶을 '문화 번역 (cultural translation)'의 관점에서 접근하여, 이 지역의 상이한 문화들 간의 역동적인 상호 작용과 교섭의 과정을 다양한 예술적 매체와 실천 방식을 통해 연구하고 기록하고자 기획되었다. 이런 협업의 과정은 한국 작가와 이주민 개인 모두에게 타 문화와의 교류 속에서 자신의 문화와 위치를 성찰하고 더 나아가 새로운 문화 생산의 가능성을 모색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듀얼게임_협업을 통한 문화 번역에 대한 연구와 실험

'듀얼게임_협업을 통한 문화 번역에 대한 연구와 실험' 전시는 동일한 타이틀 하에 올해 진행되었던 <2011 리트머스 레지던시 프로그램>에 참여한 4명의 작가들의 지난 3개월 입주기간 동안의 창작 활동과 그 결과물을 소개하는 기획전시이다.

올해 레지던시 프로그램은 한국 작가와 원곡동을 거점으로 생활하는 다양한 구적과 직업을 가진

이주민 개인 간의 상호 소통과 협업 그리고 '문화 번역'의 개념에 포커스를 두었다. '문화 번역'이란 "한 언어를 다른 언어를 대치하는 일반적인 '번역'과는 다른 것으로, 타자의 언어, 행동 양식, 가치관 등에 내재화된 문화적 의미를 파악하여 '맥락'에 맞게 의미를 만들어내는 행위"라고 정의된다. (인용 출처: 김현미 「글로벌 시대의 문화번역」, 2005, p. 48)

이런 의미에서 본 프로그램은 이주민을 능동적인 '문화 번역자'로 이해하고, 다양한 가치와 삶의 양식, 문화들이 혼재하는 원곡동이라는 구체적인 삶의 문맥 안에서 이주민이 다양한 문화 간의 차이를 중재하고 번역하면서 지속적인 문화적 타현과 교섭의 과정을 구성한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입주작가들은-이주민과 함께 그의 삶과 일상의 자취를 따라 여행할 수 있는 원곡동 투어 프로그램을 기획하고 진행하기, 이주민들이 귀환 후 이루고자 하는 꿈을 컨설팅 해 주는 가상적 에이전시를 운영하기, 이주민과 사진 교환을 매개로 소통의 과정을 실험하기, 이주민과 하루를 함께 보내며 하루의 가치를 사색하고 공유하기-등의 다양한 실험적 방식을 통해 파트너 이주민과 적극적인 소통과 협업을 진행하며, '문화 번역'의 과정이 투영된 이주민의 삶과 일상을 근거리에서 경험하고 공유하였다. 작가가 주도하는 예술 프로젝트의 프레임 안에서 이주민의 위치는 동등한 협업자리기 보다는 작가가 설정한 예술적 게임에 다양한 역할과 형태로 참여하는 참여자로서의 역할에 한정될 수 밖에 없었고, 동시에 게임의 과정에서 발견된 이주민 개인의 삶과 일상을 기록하는 과정은 예술적 재현을 통해 이주민을 대상화시킬 수 있다는 문제를 고민하게 하였다. 이제 그 지난했던 소통과 협업의 과정을 뒤로하고, 작가들이 그 과정에서 경험하고 고민했던 내용들이 이번 전시를 통해 관객들과 함께 공유되고, 사색되기를 바란다.

이주를 사유하다 (Being on the move)

기간: 2011년 12월 16일 - 12월 24일

총괄기획: 곽소연

참여작가: 플라시 바타치르체 (방글라데쉬), 리자 메이 데이비드 (독일), 알리시아 그롤용 (미국), 권자연 (한국), 이주영 (한국), 얀 레미츠 (독일), 박도빈 (한국), 도로타 폴라스카 (폴란드), 줄리아 사리세티아티 (인도네시아), 다프네 르 세르장 (프랑스), 아타리 아트 워크 - 이인혁, 수잔 당골, 람 마하르잔, 우잘라, 카팔리, 살리네스 마하르잔, 상계 세르파 (한국, 네팔), 리카 아우리아이넨 (핀란드)

협력: 지구인의 정류장

노동이나 결혼 이주와 같은 특수한 이주의 경험이 집약적으로 드러나는 원곡동이라는 장소적 모델에서 출발하여, 다양한 지역/도시와 문화를 배경으로 진행되고 있는 인간의 이동과 이주 그리고 이와 연관된 다양한 사회문화적 현상과 변화, 문제 그리고 미래적 비전을 다양한 관점과 예술적 방법으로 접근하여 연구하고 기록, 재현하고자 기획되었다. 더 나아가 원곡동이라는 지역적 맥락을 반영한 '이주'라는 통합적 주제하에 국내외 작가들과 그들의 작업을 상호 연결시킴으로써 국제적/초국가적 네트워크와 교류를 실험하고자 한다.